



문화 속 진실과 거짓의 숨바꼭질



추태화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기독교문화학과 교수이다. 단국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 기독교문학, 철학, 사회학(M.A.)을, 그리고 아우그스부르크대학교에서 독일 문예학과 신학을 공부했다(DR. PHIL.). 문학과 문화 비평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맑고 풍요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독교문화운동가이다.(antelao@hanmail.net)

진실과 거짓 게임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거의 원초적이다. 어쩌면 태생적이라 해야 맞을 것 같다. 인간을 만드신 후 하나님은 인간과의 진실한 만남과 관계를 요청하셨으나 그 결과는 번번히 빗나갔다. 아담의 경우를 보자. 아담은 이브를 보는 순간 진실을 말하였다.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그런데 곧이어 간교한 사단이 다가온다. 그가 속삭인 말은 거짓이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문제는 인간이 진실과 거짓 게임에서 거짓에 기울기 더 쉽다는 데에 있다. 에덴에서 추방된 원인은 하나님의 진실 편에 있지 아니하고 사단의 거짓에 기울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신다. 추방 후에도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 진실만을 말하고 행동해야 할 인간이 어찌 거짓을 말했는지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다. 거꾸로 표현하면 인간의 거짓된 삶을 비추는 반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거짓은 리얼하여 현실적이며, 실존의 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진실과 거짓은 종이 한 장 차이도 안될 만큼 아주 가까이 경계하고 있다. 인간은 죄의 오염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기에 거짓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 어쩌면 바울 사도의 표현처럼 “사단의 가시” 같은 실체인지도 모른다. 사람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약함의 증표 같은 것일지 모른다. 인간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을 향하라 하고, 죄의 속성은 거짓이 더 쉽다고 유혹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중성에 관해 고백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5).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경계인이요 이중적 존재이다. 그러면 어떻게 죽음으로 향하는 치명적 상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아야 거짓으로부터의 해방이 시작된다. 자연 상태에서 거짓의 실재가 그러하건대 인간이 만들어가는 인위적 상태인 문화에서 거짓은 또 얼마나 만연하겠는가!

문화는 거짓제조기?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류 역사의 시작을 열어주는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의 행위를 보면 진실과 거짓 사이의 숨바꼭질이 난무한다. 최초의 도시적 공동체인 바벨탑이나 소돔 같은 곳은 거짓으로 가득찬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기에 이른다. 이를 추론하자면 오늘날은 어떠한가. 진실과 거짓,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혹의 영, 거짓의 영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광분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화평의 문화, 생명의 문화, 회복의 문화가 작동되고 있는 것은 거짓의 횡행함 속에서도 분명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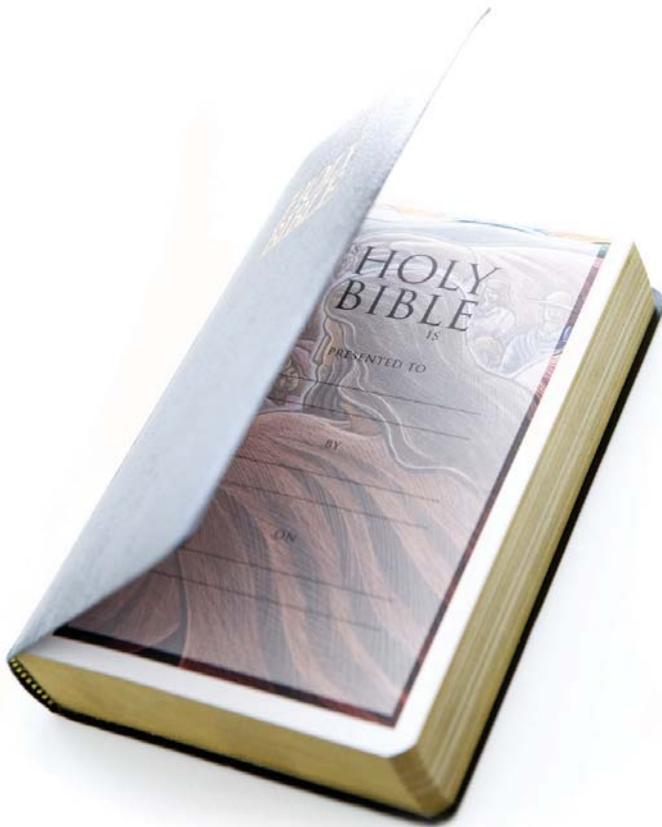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 거짓은 상당 부분 문화 속에서 조작된다. 미디어 문화를 보자. 보도 경쟁은 거짓을 만들어낸다. 영화 <제보자>는 한국의 정상적 판단을 마취시킨 유전자 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명예를 추구하는 의학과 이를 보도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하는 방송사, 그리고 맹목적인 애국주의에 환호하는 일부 추종자들이 만들어낸 거짓극을 모델로 하고 있다.



먹거리 광고는 또 얼마나 거짓이 판치고 있는가. 불량식품 유통, 환경호르몬 함유량 모른척하기, 과대포장, 유통기한 지난 제품 유통, 생산지 바꿔치기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발한 거짓에 기반한 꼼수가 판치고 있다. 짝퉁 시장은 애초부터 거짓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맹활약하는 영역이다. 명품을 선호하는 '된장족'을 겨냥한 모조품 유통은 어마어마한 단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 모조품 시장은 물건에만 머물지 않고 정신적, 영적 영역으로까지 범위를 넓혀 거짓과 진실을 모호하게 만든다. 거짓 위로, 거짓 격려, 거짓 희망을 양산하는 문화는 거짓 철학, 거짓 세계관, 거짓 종교, 거짓 교회로 자리잡는다. 상술로 포장된 거짓 정신 세계는 보통 사람이 구분하기 힘들기에 영향력 또한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확산 일로에 있다.



거짓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풍조는 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거짓 이미지가 실체처럼 유행하는 현상이 성형이다. 성형이 의학적 영역을 떠난 것은 이미 오래다. 성형은 이제 기호, 선택의 영역에 속한다. 얼굴에서 시작된 성형은 결국 성전환 수술에까지 이른다. 소수 인권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성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동성애가 거짓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면 인권 문제와 결부시켜 고소·고발당하는 게 현실이다.



문화는 인간의 인위적 구성물로서 거짓이 팽배해 있다. 문화에서의 거짓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화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시뮬라시옹(simulation)은 상대적이기 쉽다. 여기에서 진실과 거짓은 상대적으로 만난다. 포스트모더니즘이 해체해 놓은 진공 상태에서 진실과 거짓은 상품의 교환가치로 환치된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과 거짓은 힘의 논리로 규정된다.

문화는 진실을 향해가는 인간의 행위에서 나와야 하므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 있다. 문화의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된 실체로 등장하기 위해서 문화는 기독교적 변혁(Transformation)과 맞닿아 있어야 한다.

복음, 거짓문화 변혁의 힘

문예학자 루카치는 소설을 이렇게 규정했다. “소설은 (거짓된) 거짓(fiction)으로 (진실된) 거짓(reality)을 폭로하는 장르이다.” 앞서 관찰한 문화의 거짓은 현재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문화의 회복에 신뢰를 보내는 개혁적 관점은, 허구적인 거짓으로 거대한 거짓을 폭로하고 퇴치시키는 방안을 보여준다. 소설이 그 도구의 하나라는 이론이다.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이 낳은 이야기를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허구)라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통해 지배하고 억압하는 현실의 진짜 거짓을 물리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문화의 효용은 여기에 있다.

문화는 인간의 상상력, 세계관이 만나 창조하는 제2의 피조세계라 할 수 있다. 문화는 가상의 세계가 리얼 세계와 만나서 형성, 진행, 해체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반복된다. 문화는 본질과 현상 사이를 순환하므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한다. 달리 표현하면 진실과 허상을 순환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한다. 진실을 옷 입는 문화를 통해 거짓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이제 문화가 거룩해지도록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한다. 문화를 창조하는 이들이 복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는 형식적 세례를 의미하지 않는다. 할례에도 마음의 할례가 육신적 할례보다 중요하다. 세례도 전인적이어야 한다. 문화창조의 일선에 있는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문화를 소비하는 이들이 복음의 감동 아래 있을 때 문화는 자연스럽게 변혁을 시작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서 출발하여 가정, 교회, 학교, 직장 나아가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게 해야 한다. 그렇게 문화 변혁운동이 온 땅에 구석구석 퍼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서 기독교문화가 흔들림 없이 자리잡을 수 있다. 영적 전쟁의 결실로서 진실이 거짓을 몰아내고 거짓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 기독교문화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 열방에 빛을 발하게 되리라. ☺